

# 2018.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8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1.30	대전MBC 대회의실	8/10	5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이승선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편집부장, 김미리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8	7	-	-	15	-	15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3	2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1월
보도	기관에서 제공받는 뉴스 보다는 기획취재 뉴스 필요	뉴스데스크 “메르스 유족 소송 기각 왜?”(1/23) 등 심층취재	1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식 변화	패널 구성 다변화, 프로그램에 주제를 설명하는 취재영상물 삽입	1월
교양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프로그램 포맷 개발	TV프로그램 “경청” 등 스마트폰 카메라를 스튜디오에 연결 시청자 참여하는 프로그램 선보여	1월
교양	TV특강 프로그램 출연자 자막 시청자들이 읽어들 수 있게 속도 조절	TV특강 “연애(1/8), 학벌과 스펙(1/15) 입시교육(1/22)” 등 출연자 소개 자막 속도 조절	1월
교양	건강프로그램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병과 진단처방 제공	퇴행성 척추질환(1/6), 이명(1/13), 전립선비대증(1/20), 협심증(1/27) 등을 소개하며 처방방법 등 정보제공	1월
교양	로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주제에 맞는 구성방식을	“테마기행 길” 로드 다큐멘터리에서 “남도 청년장맛(1/11), 삼색낭만 제주 겨울여행(1/25)” 등 프로그램 구성을 주제에 맞게끔 답사코스를 구성, 영상 처리	1월
보도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도 관련 취재 지속적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잡음 계속(1/18), 유성복합터미널사업자 선정 감사청구 주장(1/22)” 등 보도	1월
교양	아침 정보 프로그램 파업 이후 조속한 정상화 필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정상적으로 제작, 방송 요일별 코너도 정상화	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7.05.01- 18.04.30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7.05.01- 18.04.30

\*신성철, 송길현, 김종문, 함진호, 김은주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저녁8시에 방송되는 뉴스데스크의 오른쪽에 시간과 요일을 표기하면 좋겠다. 또한,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진행시 현재 여성아나운서 1인보도 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감을 도모하였으면 좋겠다(이상진).	파업과 제작거부 이후 2017년 12월26일부터 현재까지 비상체제로 뉴스를 운영했으나 신임 보도국장 선임 이후 뉴스포맷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별 앵커 배치부터 자막, 리포트 선정까지 다양한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진행시, 해당정보가 시청자의 이해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화면의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포그래픽 활용을 보다 더 강화하였으면 한다(이상진).	시청자의 시각적 이해를 돕는 인포그래픽 도입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 운용 자원을 보강해 뉴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	○		
보도	뉴스 프로그램은 단순통계적인 정보사항(예; 행복도시 신설 업종 음식점 부동산 학원 순)을 보도하기 보다는 지역의 핵심 이슈 중심으로 보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시기 또는 특정일과 연관 되었을 때, 제한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해당 뉴스를 보도하는 배경과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단순히 시간계획을 채우기 위한 보도내용을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본다(이상진).	공공기관의 통계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계에 담긴 맥락과 의미를 분석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	
교양	시사플러스(1월 11일)에서 “호텔리베라 폐업논란”을 다루었다. 궁금했던 사안이었는데, 대전MBC에서 다뤄줘서 감사히 잘 보았다.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심도 있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식회사 신안레저 대표이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대전MBC에서 정보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은 알 수 있었고, 관광지로서의 유성의 쇠락과 부흥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 전체적으로 잘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된다(김은주).	그 동안 소홀했던 노동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파업 복귀 후 첫 방송인(1월4일)‘한남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외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제작진의 각오와 의지를 담았다. 앞으로도 지역에 천착하는 시사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보도	시사토론M(1월 14일)에서 “미리보는 6.13 지방선거”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시장이 공식인 상황에서 대전시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지방선거를 주제로 하여, 대전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적극	○		

	<p>장뿐만 아니라 세종시장, 충청남도지사 등 후보군을 분석하고, 지방의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심 이슈 선정과 식견 있는 토론자 선정이 잘된 것으로 보인다(김은주).</p>	<p>보도하도록 하겠다.</p>			
교양	<p>리나의 충청여지도(1월 4일)에서 “따뜻한 겨울여행 논산 연산면”이라는 타이틀로 논산 연산면을 소개하였다.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볼만한 곳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이리나씨를 진행자로 선정한 것은 잘 한 것 같다. 진심으로 느껴지고 과장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 거슬리는 면이 없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낀다(김은주).</p>	<p>리나는 대전MBC에서 리포터로 활약한 지 5년이 넘는 베테랑으로 그녀가 가진 장점으로 외국인이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에 있어 과하지 않은 장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업이 있어 제작이 쉽지는 않지만 주부감성을 표방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다.</p>			
보도	<p>밀양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지역 요양기관 점검하고 지적하는 리포트는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보도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회성 리포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제천사고 때는 사우나 중심) 공공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영화관, 서점, 쇼핑몰, 지하철 등 많은 대중들이 찾는 곳은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김종문).</p>	<p>시민 안전을 위해 취약한 안전문제를 진단, 발굴하고 당국에 정책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리포트를 자주 제작하도록 하겠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저장고 화재의 경우 대전MBC의 집중보도에 따라 원장의 사과와 정부의 감사를 도출하기도 했다.</p>	○		
보도	<p>8시 뉴스데스크가 안정적으로 잘 정착되길 바란다. 깊이 있는 진행, 입체적인 기획뉴스 발굴,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찾아 종합뉴스로서 균형을 지키면서 진면목을 갖추어지길 바란다(송길현).</p>	<p>백화점식 나열 보도 행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과감히 집중해 시청자와 소통하는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다.</p>	○		
교양	<p>“테마기행 길”에서 &lt;겨울이 좋다, 포만감 가득 포항바다 여행&gt; 타이틀로 포항의 명소를 소개하였다. 호미곶, 등대박물관, 창작 공간, 과메기문화관 등 다양한 곳을 소개하였는데 진행자의 지나친 호들갑이 다소 눈에 거슬렸다. 가수 박규리씨가 진행자로 나섰는데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진행한 점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진행자의 지나친 감정표현은 시청하는데 방해가 된 듯하다(송길현).</p>	<p>시청자와의 보이지 않는 감정선 유지가 중요하다. 과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덜어내는 연출자의 후반작업이 아쉽다. 공동제작의 한계로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건의하겠다.</p>	○		

<p><b>교양</b></p>	<p>“생방송 아침이 좋다”(1월 10일)의 오늘 사진과 문자 주제는 ‘나의 애장품1호’였다. 1월 9일과 10일 우리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겨울 왕국이었다. 아름다운 우리지역 곳곳의 설경이나 눈에 얽힌 사연 등 조금 더 시의적절하고 생동감 있는 주제를 선택해 진행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사진이나 문자 주제는 그날그날 이슈나 날씨 등과 조금 더 연관된 내용들로 진행해 준다면 좋겠다.</p> <p>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와 리포터들의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유행어, 비속어들과는 차별화 되어야하고 표현들 역시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리포터들은 물론이고 진행자인 김지원 아나운서까지 ‘애정하는 애장품’ 이라거나 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강은혜).</p>	<p>시청자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주제 선정 등 아이템 선정에 있어 시의성을 담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게 표현을 하려다보면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시정 조치 하겠다.</p>			
<p><b>교양</b></p>	<p>“허참의 토크 앤 조이”(1월 14일)에 11년간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3년간 만권의 책을 읽은 후 3년간 무려 60권의 책을 써낸 김병완 작가가 출연하였다.</p> <p>작가의 이력이나 강의내용을 시청하면서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방청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적 한계로 특강이 거의 없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 만이라도 초·중·고교생들이 존경할 만한 출연자를 섭외해 함께 이야기 하고 강의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해 보았다(신종성).</p>	<p>방학을 맞아 학부모를 위한 교육전문가의 특강과 같은 계기성 특집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다. 좋은 의견 감사하다.</p>	○		
<p><b>보도</b></p>	<p>뉴스데스크(1월 23일) &lt;메르스 유족 소송 기각 왜?&gt;는 한때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이지만, 현재는 관심에게 멀어진 메르스 사태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본다.</p> <p>특히, “오래전 일 같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불과 3년 전...”이라는 멘트가 충분히 공감할 만 하였다. 이어 도입부 당시 뉴스 자료를 덧붙인 것이 당시의 상황을 잘 전달하여준 것으로 보인다.</p> <p>유족과 재판부의 입장을 CG로 정리하여 전달하여 시청자 이해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 말미에 “메르스 사태의 감염 확산 책임을 따지기 위해 유족이나</p>	<p>2015년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고 간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해당 리포트에 등장하는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했지만 소송이 서울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자칫 지나칠 수 있었지만, 보도부문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간과하지 않고 사안을 적극 발굴한 결과 중요한 소송의 전후 맥락을 짚어볼 수 있었다. 리포트 제작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소송의 정확한 건수를 전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법률통계 보도 시 정보 취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p>	○		

	격리자들이 국가나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더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정확히 몇 건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함진호).				
보도	‘뉴스데스크’ (1월 19일) 처음에 앵커를 비출 때 나오는 BGM(배경음악)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기술분쟁에 대해 말하는 기자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기술분쟁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의 발음이 부정확해 전달성이 떨어졌다(정철상).	직무 훈련을 통해서 스튜디오 출연 시 기자들의 전달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뉴스데스크 타이틀 음악(시그널)은 서울과 연계된 부분인데,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보겠다.			
교양	‘생방송 아침이 좋다’ (1월 24일)의 <우리동네 sns스타>에서 출연자들을 인터뷰할 때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 되어 있어 부담스럽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유익한 전시회라던가 좋은 명소들을 소개 해주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정철상).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전국 MBC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린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교양	‘건강플러스’ (1월 20일)에서 <전립샘비대증>에 대하여 방송했다. ‘건강밥상’ 코너에서 표고버섯에 대해 설명할 때 팝송이 BGM으로 나오는데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5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전립샘 비대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웠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정철상).	가장 좋은 BGM은 현장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그림과 잘 어울려야 하는데 고민이 짧았던 것 같다. 과유불급을 염두에 두며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		